

“폭염에는 몰캉스!” 쇼핑몰, 이색 체험으로 집객 효과

IFC몰 17일까지 빅박스 미니카 축제
롯데몰 물놀이장·시즌 축제 개최
스타필드하남 ‘신비아파트’ 이벤트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통가에서는 여름시즌 특수를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휴가를 즐기기 위해 야외로 놀러가지 않고, 쇼핑몰로 향하는 ‘몰캉스족’이 늘면서 복합쇼핑몰들은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폭염이나 장마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몰캉스(몰+바캉스)를 즐기려는 고객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키덜트족 위한 미니카 축제**

복합쇼핑문화 랜드마크 IFC몰은 오는 17일까지 몰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빅박스 미니카 축제’를 개최한다.

빅박스 미니카 축제는 팝업스토어 내 미니카 전시와 미니카 제품 조립 체험, 미니 트랙 위의 액션 레이싱까지 키덜트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빅박스 미니카 축제.

/IFC몰

체험형 콘텐츠다.

이 기간동안 L3층 사우스아트리움에서는 미니카 기본킷, 베이직튠업셋, 배터리 등을 전시·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이곳에서 구입한 제품을 조립한 후 트랙 체험과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롯데몰 은평점, 어린이들 공략!**

롯데몰 은평점은 3, 4층에 위치한 어

린이 테마파크 ‘언더씨킹덤’에서 8월 31일까지 여름 시즌 축제 ‘언더씨 매직 스토리’를 개최한다. 풍선을 활용한 마술 공연 ‘언더씨킹덤 벌룬쇼’와 삼바 공연 ‘매지컬 파라다이스’는 관람객도 참여가 가능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끈다. 체험형 놀이시설로 알스튜디오, 산호빌리지, 키즈토리아에서는 간단한 도구 마술을 체험한 뒤 미션 완료 도장을 받



신비아파트 x 스타필드하남. /CJ ENM

◆**스타필드 하남, ‘신비아파트가 떴다!’**
스타필드 하남점은 이달 25일까지 CJ ENM과 함께 투니버스 캐릭터 ‘신비아파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며, ‘신비아파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과 뮤지컬 공연 등을 함께 선보인다. 주말은 물론, 주중 상시 운영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스타필드 하남을 찾는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주말 동안에는 증강 현실(AR) 게임인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체험존도 열린다. 개인 스마트폰 또는 체험용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LED와 연결해 실감 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풍성한 경품 및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며 특히 스타필드 하남에서만 잡을 수 있는 귀신을 제공해 게임 유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갤러리아명품관, ‘컬러 스톤 다이아몬드’ 전시
갤러리아명품관이 오는 31일까지 영국 하이엔드 주얼리 전문 브랜드 그라프의 ‘컬러 스톤 컬렉션’ 전시를 진행,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총 판매 규모 약 120억원의 최고급 보석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14일 전했다. /갤러리아

롯데백 “명품 최대 90% 파격 세일”

내일부터 ‘해외명품대전’ 진행
100여개 브랜드 참여... 역시즌 상품도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부터 해외명품대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결산 명품 행사를 통해 총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30%~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의류, 가방, 구두 등 봄, 여름 상품의 할인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패딩, 모피 등 역시즌 상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롯데백화점 해외명품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4% 신장하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가방, 지갑, 구두 등 잡화는 물론 해외명품의류까지도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신장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명품 성장세에 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결산 해외명품대전에서 해외명품 의류 물량을 대거 확보하고 전년가지 2~3개점포에서만 진행했던 점포를 5개점으로 확대했다.

이번 해외명품대전에서는 ‘마이클코어스’, ‘발리’, ‘에트로’ 등의 명품 잡화 브랜드와 ‘겐조’, ‘센존’, ‘에스카다’, ‘소니아리키엘’, ‘막스마라’ 등의 명품



고객이 명품 패딩 제품을 시작해보는 모습. /롯데쇼핑

의류 브랜드 상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명품 모피 브랜드인 ‘사바티에’, 명품 패딩 브랜드인 ‘파라점퍼스’, ‘노비스’의 역시즌 상품도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행사기간 중 롯데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에 따라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50만원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본점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본점은 16~21일, 잠실

점은 16~21일 1차 행사를 진행하고 8월 14~18일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본점은 8월 1~8일, 대구점 8월 15~19일, 인천테리널점은 8월 22~25일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최용현 해외명품팀장은 “해외명품 매출은 전년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외명품 행사로 고객들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을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H몰,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관 오픈

온라인편집숍 ‘서울패션산업관’ 오픈

현대홈쇼핑이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유통 판로 지원에 앞장선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현대H몰은 15일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해 온라인 편집숍인 ‘서울패션산업관’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현대H몰은 ‘서울패션산업관’에 총 12개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자체 품평회를 통해 상품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들을 선정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서울 주얼리산업 공동브랜드인 ‘스페이스42’를 온라인에 단독으로 선보인 것이 계기가 돼, 이



번에도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H몰은 의류(그리다제이·주빈·스프링봄·구공페스트), 잡화(아르75007·퀴스케·다엘·양말장인), 주얼리(예노주얼리), 라이프스타일(엘비스독·푼푼·윈월드프로덕션) 등 12개 브랜드 총 200여개 아이템을 단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H몰은 오는 21일까지 ‘서울패션산업관’ 오픈을 맞아 입점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 및 일차별 5~8% 신용카드 청구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GS25, 외화결제 전국 확대... 달러·위안·유로 등 편의점서 사용

서비스상품 제외 모든 제품 구매가능

편의점 GS25는 달러·위안·유로·엔 등 네 가지 종류의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전국 점포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GS25는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이나 해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과 이태원, 제주도 등에서 외화 결제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의 국내 사용처를 찾는 내국인이 많아져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앞으로 GS25에서는 택배와 같은 서비스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외화로 구매할 수 있으며 거스름돈은 원화로

받게 된다. 매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환율 정보를 받아 환율을 적용한다.

위조지폐 사고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영주와 근무자를 위해 결제 시 내 종류의 화폐 이미지가 계산기 화면에 뜨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